



◁샘터에서 청수를 받고 있는 모습.



◁새벽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오는 불영사 스님들.

## 새벽 산사에선...

# 칼바람 맞으며 '기필코 성불' 서원

"식은 화로 아무리 해쳐 봐도 불기운은 없고/ 외로운 등진불은 다시 밝아질 줄 모르네/ 적막한 채 이 밤이 지나 가노니/ 먼 개울 소리 벽을 뚫고 들어오네."

새벽. 어느 선객은 이 때아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새벽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사다.

어느 사찰이든지 산사의 새벽은 묵묵소리로 시작된다. 새해 첫날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 천정산에 자리한 불영사(주지 철안)도 그렇다. 이 산사의 도량석은 출가한지 6개월 때 되는 한 행자의 몫이다. 한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할 것 같은 갑색 행자복에 피로라니 깎은 머리가 유난히 추워 보인다. 하지만 행자의 신심은 한겨울 추위를 무색케 한다.

새벽 3시. 한 행자는 법당을 향해 예를 올린 뒤 목탁을 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약하게 두드리다가 차츰 커진다. 법회나 기도 때와는 반대이다. 도량석 목탁소리가 새벽을 가르고 경내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포스 산사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선객들은 회두를, 화승들은 경전을 찾는다.

한 행자가 <천수경>을 독송하며 공양간을 막 지날 때 또 한 명의 옛날 행자가 돌주전자와 들고 샘터로 향한다. 부처님께 올릴 맑은 샘물을 받기 위해서다. 새벽 산사의 공기보다 더 시원 돌주전자를 손에 쥔 그는, 깊이 모락모락 오르는 샘터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한 뒤 청수를 받아 법당으로 재건음을 올린다. 이렇듯 분주히 움직이건만 소란스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도량석(禮場) 스님들은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 시간을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긴다. 눈동과 동시에 찾아오는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 의식은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맑히는 '정구업진언'으로 시작된다. 이어 모든 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오방내외인위제신언', 그리고 '사방천'과 '도량천'이 이어진다. 이런 독경은 수행처를 조성하기 위한 의식이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목탁을 잡은 손을 움푹달라 할 수 없게 할 때 스님들은 '침회계'를 외우고 침회진언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는 발원과 함께 '여래십대발원문'을 외우고 사후서원으로 도량석을 마친다.

참회와 발원. 이것이 새벽 산사의 하루를 여는 도량석의 맺음이다. 도량석은 결코 잠을 깨우는 의식이 아니다. 지비를 베고 밤을 전하는 깨달음의 도량을 열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 새벽 3시 **도량석 염불소리**  
**온산 울리듯 청량**
- 기도정진하는 스님 **새벽 4시**  
**경전공부하는 행자**
- 새벽 5시 **팔걸고 도량청소**  
**분주한 공양준비**

깨달음으로 세계로 가기를 서원하는 수행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이 마치면 공비로 땅과 하늘, 물과 지옥 중생들까지도 일깨우기 위해 법고·운반·법종을 예불 직전에 친다. 이 사들의 울림 속에는 예불문의 마지막 구절인 '원공법계제생생 자타인사성불도願共法界 諸衆主 自能一時成佛道' 즉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지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

작은 범종의 마지막 울림에 모든 대중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자리를 밀고 일어선다. 그리고 새벽 예불문의 첫 구절인 다게에 이어 대중들은 오분향례를 다함께 독송하며 절을 한다. 부처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간절한 서원이 또 시작된다.

반야심경 독송을 마지막으로 새벽예불이 끝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4시. 이 때부터 새벽 산사는 활기를 찾는다. 불영사의 경우 법당에선 1천 일 기도에 들어간 해복 스

님이 법당에 남아 기도하고, 두 명의 행자는 30여분 절을 한 다음 경전공부를 한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하루의 일정을 점검한다. 요즘같이 밤이 긴 겨울에는 이러한 스님들의 공부는 2시간 정도 이어진다.

어스프레 날이 밝아오는 시간, 스님들은 골짜기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안개를 밟으며 빗자루 하나씩을 들고 나뉜다. 딱히 쓸 것이 없는 마당이지만 스님들은 비집고 열심히 마당을 쓰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라 했던가. 그래서인지 마당을 쓰는 스님들의 모습은 우리네 모습과는 달라 보인다. 이때쯤이면 공양간도 분주하다. 장작을 지핀 부뚜막 가마솥에는 밥이 익어 가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공양주 보살이 막 김장독에서 꺼낸 김치와 원장찌개가 군침을 돋게 한다. 특히 불영사는 매일 아침 콩을 삶아 직접 두부를 만든다. 이 일은 두 행자와 올해 사미계를 받은 혜종 스님의 몫이다. 이들에게 있어 두부를 만드는 운력은 새벽의 일과 중에서 가장 재미있어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추운 겨울 활활 타는 장작불 앞에서 불을 쬐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란도란 이야기도 마음껏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부 만드는 재미 또한 곁들인다. 가마솥에서 등글등글 순두부가 만들어진 것을 두부판에 담아 누를 때면 아찔 공양 시간을 일리는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분주하면서도 고요한 겨울을 나고 있는 산사. 겨울이면 아직도 군불을 지펴 공양을 짓고 두부를 만드는 산사. 그곳에 가면 정겨운 옛 절의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새벽 새아침, 새벽산사로 가보자. 그리고 그 풍에 안겨 도심에서 고단했던 삶의 보따리를 모두 풀고,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찾아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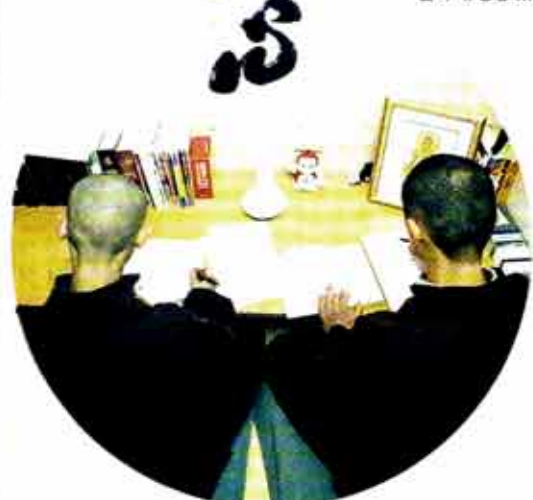
글=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태 기자(ygo@buddhapia.com)



◁새벽 예불을 하고있는 행자들.



◁새벽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은 각자의 수행을 한다. 사진은 법당에서 1천일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 모습.



◁새벽예불을 마친 행자들의 경전공부 모습.



◁스님들에게는 마당을 쓰는 것도 수행이다.



◁산사의 거울식당에서 배울 수 없는 두부를 만들고 있는 스님들.



###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 침견과튀김

"강종(姜宗)이! 편안하냐?" 다 떨어진 웃음 입은 스님이 대걸로 들어가는 대 걸의 행차를 막아섰다. 한 나라의 재상인 서거정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 설장. 오래간만에네. 여기는 어떤 일인가?' 서거정 대감이 걸인같은 스님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설장은 김시습의 법명이었다.

장안은 온통 이 스님 이야기로 시골 벽적했다. 어디 그뿐인가. 김시습이 머 무는 셋집에는 많은 유생들이 찾았다. 그 중에는 재상인 서거정 대감도 끼어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15년이나 아래인 김시습은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발장난을 하는데, 서거정 대감은 곳곳이 앉은 자세로 응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서거

### 신경성 스트레스와 울화병 치료

장은 김시습을 여전히 찾아오고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는 나는 새도 떨어 드린다는 권세가였던 한명회가 쓴 편편을 봤을 꺼내 서슴없이 고치기도 했다. 김시습은 수락산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제자 선행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늘 먹을 것이 모자랐다. 그는 자신을 중국의 도연명과 비교하며 콩과 조, 흰죽을 끓여서 먹었다. 김시습은 걸 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다 얻어먹는 것도 괴로워 하루는 서거정을 찾아가서 그가 내놓은 진수성찬 앞에서 정작 김시습은 찬물에 말아 죽을 만들어 먹었

다. "이것이 소승의 한끼 끼니입니다." 답답한 세상에 김시습의 꿈은 지조가 새삼 그렇다. 김시습은 몇 차례 한숨을 했다. 그는 이상과 현실에서 수없이 갈등했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는 불암산 자락에서 제자와 먹을 것이 없어 밥을 굶으며 침뿔리에 조 한 주먹을 넣어서 끓여먹기도 했고, 불암산자락의 취포기를 들 수 있을 만큼, 그의 끌어오르는 울분과 열정을 갈근(渴渴)으로 식혀냈을 것이다.

■락산식연구가<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침죽말 1컵, 단호박 50g 견과류(견, 호두, 땅콩) 50g 식용유, 초간장(혹은 조청시럽)
- 요리법** ① 단호박은 살라 찌서 으갠다. ② 침죽말(말뚝)에 견과류를 적당한 크기로 잘게 부수어 넣는다. ③ ②에 ①을 섞어서 동그랗게 완자를 빚어 녹말에 굴린다. (물기가 많으면 녹말을 섞는다.) ④ 130도의 끓는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낸다. ⑤ 간식으로 조청시럽에 담가 내놓고, 반찬으로 낼 때는 초간장을 곁들인다.
- 효능** ① 위에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을 치료한다. ② 고혈압으로 어깨가 걸리는 사람은 1주일만 침죽을 먹으면 크게 호전된다.